

초등학생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및 가족적응성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황 희 정 이 주 영†

동덕여자대학교 아동학과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및 가족적응성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서울과 대구에 위치한 3개 초등학교 5, 6학년 424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상관분석과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가족응집성 및 가족적응성,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인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은 자살생각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족응집성 및 가족적응성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 3개를 각각 검증한 결과, 긍정성만 유의한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자기조절능력과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가족응집성만이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인 긍정성 모형에서는 가족응집성이 긍정성을 통해서만 자살생각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응집성이 초등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예측 변인임을 보여주며, 회복탄력성을 구성하는 개념 중 긍정성이 가족응집성과 자살생각의 관계를 매개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초등학생의 자살생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긍정성에 초점을 맞춘 회복탄력성의 증진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높은 회복탄력성은 취약한 가족체계 하에 있는 아동들을 자살생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자살생각,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회복탄력성, 초등학생

* 본 논문은 제 1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 이주영, 동덕여자대학교 아동학과,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13길 60

Tel : 02-940-4498, Fax : 02-940-4490, E-mail : jylee7694@dongduk.ac.kr

2014년 한국 어린이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2009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6년 연속 최하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박수진, 2014). 또한, 아동의 자살률이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이는 자살이 삶의 의미를 잃은 사람들이 하는 마지막 선택으로 적어도 청소년기 이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기 때문이다. Greene(1994)에 의하면 만 6세 이하의 아동도 우울을 경험하며 이를 통해 인지적, 신체적으로 자살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Pfeffer, Klerman & Hurt(1993) 역시 아동이 자살을 생각하기에 어리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Mishara(1999)는 초등학교 3학년(만 9세)이 되면 자살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Mishara, 1999).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교사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에서 2012년 6월28일부터 7월13일까지 전국 초·중·고등학교 4,694명(초 2,075명, 중 2,619명)을 대상으로 음주·자살·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 2,075명 중 29.3%인 609명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609명 중 85.9%인 523명이 처음 자살을 생각해본 시기로 초등학교 고학년을, 13.5%인 82명이 초등학교 저학년을 꼽았다. 자살이유는 가족문제(38.6%·235명), 친구와 갈등(29.7%·181명), 성적과 입시문제(22.8%·139명) 등의 순이었다. 한국청소년정

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1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는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3,185명 중 자살생각을 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6.7%로 나타났고(김원경, 2014), 여성가족부의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통계(최승욱, 2011)에 따르면 자살문제로 상담을 받은 초등학교생이 2008년 37명에서 2010년 99명으로 3년 동안 2.6배 늘었다. 이처럼 자살이 더 이상 청소년기 이후의 문제가 아닌 이른 아동기로 저연령화 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아동의 자살생각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아동 및 청소년의 자살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자살생각을 한번이라도 했던 아동들은 청소년기에 자살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으며(Pfeffer et al., 1993), 스스로 해를 가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은 참기 힘든 정서적 고통이나 괴로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충동적으로 자살시도를 한다(Diekstra, Keinhorst & DeWilde, 1995; Hoberman & Garfinkel, 1988; Hurry, 2000). 자살생각이 높은 아동 및 청소년들은 일상적인 스트레스 수준이 높고(Wilson et al., 1995), 일상적인 스트레스는 자살행동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이지연, 2005). 12세 이하 아동의 자살과 자살기도는 드문 일이긴 하지만 학령전기 아동에서 반복적으로 심각해 보이는 자살기도가 일어난다는 임상 보고가 있다(이춘재 등, 2002). 특히 가정에서의 높은 스트레스는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데(Taylor & Stansfeld, 1984) 부모와의 갈등, 부모와의 대화 부족, 부모로부터의 소외감, 가족의 지지 결여, 부모의 무관심 등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신혜정, 정익중, 이상아, 이향연, 박재연, 2014). 또한, 부모와 밀접하고 지지적인 관계를 가진 아동

은 자살생각을 덜 하였고, 어머니의 긍정적 지지는 중학생의 자살충동을 완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andel, Ravies & Davies, 1991). 따라서 아동이 속한 가족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것은 아동의 정상적인 심리사회 발달에 중요한 문제이며, 가족간의 유대는 청소년을 자살로부터 보호하는 것으로 보인다(DeWilde, Kienhorst, Diekstra & Wolter, 1994).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초기 청소년기(11~13세)에는 중기(15~16세)나 후기(18~20세) 청소년기에 비해 부모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김원경, 2014)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족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Goldenberg와 Goldenberg(1991)는 가족이란 '신체적, 심리적 공간을 차지하는 개인들의 집합이며 자연적인 사회체계로서 고유한 특성, 성장주기, 일련의 규칙, 고유한 역할기능, 특유의 의사소통을 가지고 문제해결 방법을 발전시켜 나가는 살아있는 체계'라고 규정하였다. Olson, Russell & Sprenkle(1983)은 가족체계의 정서적 차원을 나타내는 가족응집성과 조직적인 권력차원을 나타내는 가족적응성 두 요인을 기초로 가족체계를 유형화 하였다.

가족응집성은 '가족 구성원간의 상호의존성과 상호작용에 기초를 둔 심리적, 정서적 유대'를 뜻하며(Olson et al., 1983), 한 가족 구성원이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가지고 있는 연결과 분리의 정도를 말한다. 가족응집성은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분리되어 있거나 밀착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므로,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 개인의 사적공간이나 사적 친구의 허용 정도, 의사결정 방식, 흥미와 오락 등의 하위 개념이 지표가 된다. 가족응집성은 그 정도에 따라 가장 낮은 수준에서부터 가장 높은 수준

의 순서로 이탈, 분리, 연결, 밀착의 4가지로 구분된다. 즉, 가족응집성은 정서적 유대가 유리된 가족, 분리된 가족, 연결된 가족, 속박된 가족의 순으로 응집성 수준이 높아지고 그 연결 수준이 적절할 때 가족의 기능 역시 효과적으로 발휘된다(Olson et al., 1983). 가족응집성이 높으면 스트레스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능하지만(Galvin & Brommel, 1986) 가족응집성이 낮으면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떨어져 문제행동을 나타낼 수 있다(유성경, 이소래, 2001; Reed & Dubow, 1997). 실제로 Barnes와 Olson(1985)은 부모-자녀간의 갈등은 낮은 가족응집성으로 인한 빈약한 의사소통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것이 자녀의 심리적·행동적 부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박현철, 김성봉, 홍달아기(2011)의 연구에서도 가족구성원 간의 정서적 유대감이 높은 응집적인 가족에 속한 아동이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응집성과 더불어 강조되는 가족적응성은 가족체계가 상황적, 발달적으로 일어나는 스트레스에 반응하여 권력구조, 역할 관계, 규칙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Olson et al., 1986). 가족체계는 변화와 안정을 동시에 필요로 하며 적절한 때에 변화에 따라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Olson et al., 1983). 가족적응성은 그 정도에 따라 가장 낮은 수준에서부터 가장 높은 수준의 순서로 경직, 구조적, 융통적, 혼돈의 4가지로 구분된다. 가족적응성이 높으면 융통성 있는 훈육방법, 지도력, 의사소통, 문제해결을 위한 타협, 역할분담, 분명한 규칙 등 내적 균형이 잘 이루어지지만 가족적응성이 낮은 경우 가족의 변화와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Olson et al., 1983).

Olson 등(1983)은 가족의 체계를 설명하기 위해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을 두 축으로 하는 순환모델(Circumplex Model)을 개발하였다. 순환 모델(Circumplex Model)은 가족관계를 설명하는 다른 이론들과 다르게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을 직선적 개념이 아닌 곡선적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Galvin & Brommel, 1986). 즉,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이 모두 높거나 낮은 불균형 가족유형보다 중간 정도의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가족유형이 기능적이라는 곡선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이후 Olson 등(1986)은 가족응집성이 높은 것이 이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문화에서는 높은 가족응집성이 더 기능적일 수 있다고 하였으며, Olson, Porter & Lavee(1985)는 병리적인 가족이 아닌 정상 가족에서는 가족원간에 심리적으로 많이 연결될수록 가족 기능이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라 가족응집성은 과잉분리, 분리, 연결, 매우 연결 집단으로 수준별로 구분하고, 가족적응성은 경직, 구조적, 융통적, 매우 융통적 수준으로 구분하였다. 즉,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이 높을수록 기능적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족응집성 및 가족적응성이 모두 높은 구성원들은 각자 적절하게 독립되어 개인의 발전 수준이 최적을 이루고 외부 변화에 융통적으로 대처하게 된다. 국내 연구에서도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이 높은 것이 기능적일 것이라는 직선적 가설을 지지하는 연구들이 보고되었다(김미희, 1997; 김진희, 1989; 민하영, 1991; 최희량, 1998).

가족응집성 및 가족적응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고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가족의 기능이 높을수록 아동의 역량이 증가하며(이은정, 2000), 높은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

성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송은경, 2003). 반대로 가족응집성 및 가족적응성이 역기능적일수록 아동의 부적응 문제가 많고 자아개념이 낮으며(전귀연, 최보가, 1995a, 1996b),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이 낮은 가족의 아동은 경쟁-공격, 지배-우월 성향을 더 많이 나타냈다(신귀순, 2001).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은 아동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김주연, 1996), 가족의 지지와 관심, 응집성, 친밀감 및 규칙과 역할이 기능적일수록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은 덜 나타났다(허미정, 장석진, 2012). 뿐만 아니라,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을 포함하는 가족체계의 특성들은 6개월~1년 후의 자살생각 혹은 자살시도를 예측한다고 알려져 있다(Garrison, Addy, Jackson, McKeown & Waller, 1991; King et al., 1995). 특히, 가족응집성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예언지표 중의 하나로 밝혀진 바 있다(Choquet, Kovess & Poutignat, 1993). 가족응집성이 낮으면 학업 스트레스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어 자신의 문제에 대해 무기력하고 희망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자살행동을 할 수 있다(한국자살예방협회, 2008). 이정윤과 허재홍(2003)은 아동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의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자살 생각을 많이 하는 아동일수록 부모로부터 지지를 더 적게 받고 있다고 느끼고 가족응집력이 약하다고 지각하며,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역기능적이고 부모의 양육태도를 성인중심, 비난적, 적대적으로 지각하며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의 갈등이 심하다고 지각하였다. 낮은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은 아동의 소외감에 영향을 미치며 가족관계가 친밀하지 못하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

하여 경직된 가족에 속한 아동은 무력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다(김보영, 2010). 이러한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직선적 모델을 전제로 하는 가족응집성 및 가족적응성이 초등학생의 자살생각과는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한편,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과 같은 가족 기능은 아동 및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제 3의 변인에 의해 매개될 가능성이 있다. 일례로, 문대근, 이진주, 이종각, 김정민, 문수백(2013)은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중학생의 자살생각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이라는 개인내적 요인이 가족 기능과 아동의 자살생각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탄력성(resilience)'이라는 개념은 '자아탄력성', '적응유연성', '회복탄력성' 등의 여러 가지 용어로 번역되어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안소정 등, 2013). 탄력성의 개념을 분류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개인의 특성으로 생각하는 관점(Block & Block, 1980)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변화하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보는 발달정신병리학적 관점(Garmezy & Rutter, 1985)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안소정 등, 2013). 탄력성에 대해 정의하는 방식은 학자들마다 매우 다양하고 탄력성을 구성하는 하위요인들에 대해서도 일치된 견해가 없다(Luthar, Cicchetti & Becker, 2000). 일례로, Reivich와 Shatte(2003)는 회복탄력성을 구성하는 7개의 하위요인으로 정서조절(emotion regulation), 충동통제(impulse control), 원인분석(causal analysis), self-efficacy(자기효능감), 현실적 낙관성(self-efficacy), 공감(empathy), 적극적 도전

(reaching out)을 제시하였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탄력성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 Brooks와 Goldstein(2003)은 탄력성의 하위요인으로 긍정적 수용, 안정된 애착관계, 실수와 경험에서 배우기, 자발성과 자기결정, 책임감을 제안하였다. 국내에서도 주소영과 이양희(2007)는 자기효능감, 부정적 감정의 인내, 긍정적 지지관계, 통제력, 자발성의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아동용 탄력성 척도를 개발한 바 있다. 또한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2009a)은 회복탄력성이 단일한 속성이 아니라 원인분석력, 감정조절력, 충동통제력, 감사하기, 생활만족도, 낙관성, 관계성, 커뮤니케이션 능력, 공감능력 등의 9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다면적 개념임을 주장하였고, 이는 다시 통제성, 긍정성, 사회성이라는 상위의 요인으로 묶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김주환(2011)은 신우열 등(2009a)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통제성(자기조절능력), 긍정성, 사회성(대인관계능력)을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신우열 등(2009a)이 정의한 '회복탄력성'의 개념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개인이 곤란에 직면하였을 때 이를 극복하고 환경에 적응하여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능력'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여기에는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의 세 가지 하위요인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이 연구자들마다 각기 다르게 정의되는 다면적 개념임을 감안하여 회복탄력성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요인들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특성이 가족응집성 및 가족적응성과 아동의 자살생각 간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국내 선행연구들(김계숙, 2013; 신정희, 2007;

조순중, 2010; 채경숙, 2012)에서 부모-자녀 관계는 아동의 회복탄력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으며, 국외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종단 연구(Yates, Egeland & Sroufe, 2003)에서도 부모-자녀 관계는 아동의 회복탄력성을 지속적으로 예측하는 요인임을 강조하였다. 김민선(2005)의 연구에서도 가족간에 친밀할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족 내 갈등이 잦고 위험요인이 높은 가정에서 성장한 아동은 역경을 극복하는 기제가 취약하며 미래를 부정적으로 인식해 자아탄력성이 낮았다(한현아, 도현심, 2008). 따라서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은 아동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겠다.

회복탄력성은 자살생각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보인다. Thompson, Eggert & Hurting(2000)의 연구에서는 탄력성이 청소년의 자살 위험 행동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나이 13.7세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살 시도자들이 더 많이 우울하며 비자살 시도자들 보다 탄력성이 더 낮게 나타났고 탄력성이 폭력적인 사건과 우울, 자살 시도간의 관계를 중재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Nrughan, Hole & Sind, 2010). 회복탄력성은 긍정적 정서를 야기하며 이로 인해 주관적 안녕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살생각과 관련되는 부정적 정서가 감소할 수 있다(Tugade & Fredrickson, 2004). 국내의 여러 연구들에서도 탄력성이 자살생각의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검증되었는데 여지영과 박태영(2013)의 연구에서는 가족건강성과 학교건강성이 순차적으로 회복탄력성과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중고등학생들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복탄력성은

가족의 특성과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과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윤기영(2010)의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가족관계가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학교생활적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윤상영(2013)은 아동기 스트레스 경험이 회복탄력성을 매개로 주요우울장애 성인의 우울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가정의 위험요소와 아동의 외현화, 내재화 장애의 관계에서도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유성경, 홍세희, 최보운, 2004), 허미정과 장석진(2012)의 연구에서는 가족기능성과 아동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적 역할이 보고된 바 있다.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실시한 종단 자료를 사용한 연구에서는 부모 자녀 관계에서 애정표현 및 친밀한 행동을 많이 하고 개방형 의사소통으로 정서적으로 지지를 받는 아동들은 회복탄력성과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현선, 2014). 즉, 회복탄력성은 아동의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은 물론 자살생각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초등학생의 자살생각은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 같은 역기능적인 가족 기능과 관련되며, 가족 기능은 개인의 회복탄력성에도 영향을 미쳐 자살생각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회복탄력성의 다면적 속성에 충분히 관심을 두지 않았으며, 개인이 역경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구체적인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검증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의 3개 하위요인 각각이 초등학생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및 가족적

응성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매개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안정적인 관계는 회복탄력성의 세 가지 하위요인 모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우열, 최민아, 김주환, 2009b). 특히, 부모의 공감 능력은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 중 긍정성과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부모의 양육행동이 긍정적일수록 아동이 긍정적 정서를 유지하고 부정적 정서를 변화시키려는 조절 능력이 뛰어나 학교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소현, 2010).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 중 어떠한 변인이 회복탄력성 및 자살생각과 더 높은 관련성을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을 함께 고려하지 않고 각각 개별적으로 분석한 경우가 많아 이들 두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청소년에 비해 가족의 영향을 많이 받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족의 기능이 회복탄력성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검증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자살생각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경험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방 법

연구 대상

서울과 대구에 소재한 3개의 초등학교를 편의표집하였다. 연구 대상 학생들이 속한 학급의 담임교사에게 사전에 연구의 내용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 허락을 받았으며, 설문을 실시하기 전 학생들의 동의와 서명을 받았다.

표집된 3개 초등학교의 5, 6학년 464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한 결과 100% 회수되었으며, 이 중 무성의한 응답 자료 40부를 제외한 424부가 연구에 사용되었다.

연구 대상 424명 중 남자는 230명(54.2%), 여자는 194명(45.8%)이었으며, 5학년이 126명(30%), 6학년이 298명(70%)이었다. 연구대상자의 거주 지역은 서울 267명(63%), 대구 157명(37%)으로 구성되었다. 가족형태는 일반 가정 380명(87%), 사별 또는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 32명(8%), 다문화 또는 조부모와 함께 사는 기타 가정 10명(5%)로 나타났으며, 경제 수준은 하 14명(3%), 중하 30명(7%), 중 227명(54%), 중상 95명(22%), 상 12명(3%)으로 나타났다.

측정 도구

가족응집성 및 가족적응성(Family Adaptability & Cohesion Evaluation Scales III: FACES III)

가족응집성 및 가족적응성이 높을수록 기능적이라는 직선적 가설에 따라 Olson 등(1985)이 개발한 Family Adaptability & Cohesion Evaluation Scales III(FACES III)를 김미애(1997)가 아동에 맞게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FACES III는 가족응집성 및 가족적응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가족 각자가 반응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자기보고식 측정도구로 만 12세 이상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국내 여러 연구들(박선애, 2006; 박수진, 2009)에서도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본 척도를 실시한 바 있다.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을 평가하는 문항이 각 10개씩이며, 응답방식은 5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는 1점,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평가한다. 전체 점수의

범위는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 두 영역 각각에서 10점~5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Olson 등(1985)의 연구에서 산출한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가족응집성이 .77, 가족적응성이 .62였으며, 본 연구에서 산출한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가족응집성이 .90, 가족적응성이 .80이었다.

회복탄력성(Youth Korea Resilience Quotient-27: YKRO-27)

신우열 등(2009a)이 개발한 청소년 회복탄력성 검사 지수(Youth Korea Resilience Quotient-27: YKRO-27)를 김계숙(2013)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청소년용으로 개발된 YKRO-27은 박경은(2014)의 연구에서도 초등학교 5, 6학년 을 대상으로 실시된 바 있다. 본 척도는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의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김주환, 2011). 총 27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평가되며 부정 문항은 역산 처리한다. 회복탄력성 점수는 각각의 하위요인 점수의 총합으로 이루어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 및 하위요인의 능력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신우열 등(2009a)의 연구에서 산출된 전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93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의 3개 하위요인 각각을 따로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산출한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자기조절능력 .73, 대인관계능력 .70, 긍정성 .76이었다.

자살생각(Scale for Suicide Ideation: SSI)

초등학생의 자살생각을 평가하기 위해 Beck

의 자살생각척도(Scale for Suicide Ideation; 이하 SSI, Beck, Kovacs & Weissman, 1979)를 사용하였다. SSI는 자살과 관련된 생각과 행동을 측정하는 척도로 자기 파괴적인 생각이나 희망을 다양한 차원에서 측정하여 현재 지닌 의식적인 자살의도의 정도를 수량화시킨다. 원래 임상면접을 통해 임상가가 평정하는 3점 Likert 척도의 19문항으로 이루어진 검사이나 본 연구에서는 많은 피험자들을 일일이 면담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김중술(1990)이 원래의 문항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자기보고형 질문지로 변형한 것을 사용하였다. 자살에 대한 생각이 반드시 자살시도를 이끌지는 않지만 SSI 점수는 이후에 보일 자살행동의 중요한 예측지표가 될 수 있고, 자살위험에 대한 임상가의 평가와 높은 상관성이 있음이 보고되었다(Beck et al., 1979). 신민섭 등(1990)의 연구는 고등학생으로 대상으로 하였으나 자기보고형 질문지가 개발된 이후 강동수(2003)와 박선(2012)의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본 척도를 사용한 바 있다. 각 문항은 3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민섭 등(1990)의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 계수는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19문항에 대한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2였다.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18.0을 활용하여 수집된 자료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Amos 20.0을 활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경로분석 시에는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 3개를 각각 따로 분석하였다. 서론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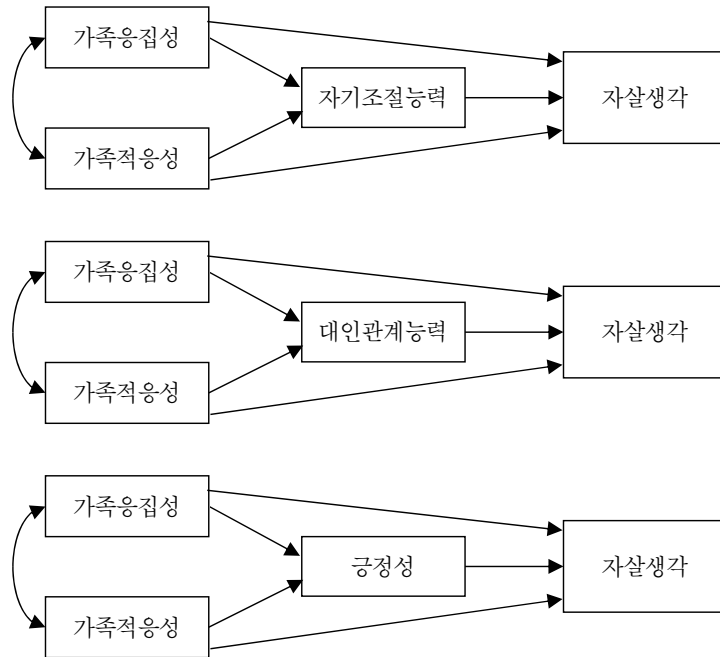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언급한 바와 같이 회복탄력성을 다룬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회복탄력성의 다면적 속성에 충분히 관심을 두지 않았던 바 본 연구에서는 역경 가운데에서도 개인을 성장시키는 회복탄력성의 구체적인 요인이 무엇인가를 검증하고자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별로 따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각각의 분석에서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의 매개효과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하위요인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Shrout와 Bolger (2002)가 제안한 부트스트랩 방법으로 간접효과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결 과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먼저, 자살생각은 가족응집성($r=-.423, p<.01$) 및 가족적응성($r=-.385, p<.01$)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인 자기조절능력($r=-.225, p<.01$), 대인관계능력($r=-.189, p<.01$), 긍정성($r=-.421, p<.01$)과도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자기조절능력은 가족응집성($r=.517, p<.01$), 가족적응성($r=.517, p<.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대인관계능력은 가족응집성($r=.469, p<.01$), 가족적응성($r=.464, p<.01$)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긍정성과 가족응집성($r=.623, p<.01$), 가족적응성($r=.552, p<.01$) 역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초등학생이 지각한

표 1.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 및 평균, 표준편차 (N=424)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회복탄력성			자살생각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	
가족응집성	1					
가족적응성	.828**	1				
자기조절능력	.517**	.517**	1			
대인관계능력	.468**	.464**	.534**	1		
긍정성	.623**	.552**	.612**	.526**	1	
자살생각	-.423**	-.385**	-.225**	-.189**	-.421**	1
<i>M</i>	37.98	35.29	32.14	33.73	34.72	25.14
<i>SD</i>	7.82	6.71	5.44	5.43	5.94	6.52

** $p < .01$

가족응집성 및 가족적응성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낮고 회복탄력성의 각 하위요인의 특성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낮음을 의미한다. 또한,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인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이 모두 높았는데, 특히 가족응집성과 긍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과 자살생각: 회복탄력

성의 하위요인 자기조절능력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는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 3개가 각각 어떻게 매개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Amos 20.0을 활용하여 경로분석을 시행하였다. 먼저,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 중 자기조절능력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표 2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표 2에

표 2.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과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 자기조절능력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계수

관계 변인	<i>B</i>	β	SE	C.R.
가족응집성 → 자기조절능력	.196***	.282	.051	3.865
가족적응성 → 자기조절능력	.230***	.284	.059	3.900
자기조절능력 → 자살생각	.006	.005	.063	.091
가족응집성 → 자살생각	-.277***	-.333	.066	-4.174
가족적응성 → 자살생각	-.019	-.112	.077	-1.406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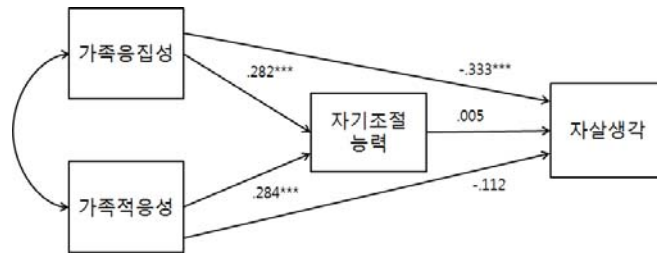


그림 2.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능력의 매개모형 (표준화 계수)

제시한 바와 같이 가족응집성($B=.196, p<.001$), 가족적응성($B=.230, p<.001$)은 자기조절능력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인 자기조절능력은 자살생각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자기조절능력의 매개효과는 검증되지 못하였다. 단, 가족응집성은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277, p<.001$).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과 자살생각: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

다음으로,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 중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

과를 표 3과 그림 3에 제시하였다.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가족응집성($B=.185, p<.001$)은 대인관계능력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그러나 가족적응성은 대인관계능력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못하였으며 대인관계능력도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는 확인되지 못하였다. 단, 가족응집성은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282, p<.001$).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과 자살생각: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 긍정성의 매개효과

마지막으로,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이 자

표 3.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과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 대인관계능력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계수

관계 변인	B	β	SE	C.R.
가족응집성 → 대인관계능력	.185***	.267	.053	3.527
가족적응성 → 대인관계능력	.197	.243	.061	3.211
대인관계능력 → 자살생각	.028	.024	.060	.467
가족응집성 → 자살생각	-.282***	-.388	.066	-4.249
가족적응성 → 자살생각	-.113	-.116	.077	-1.469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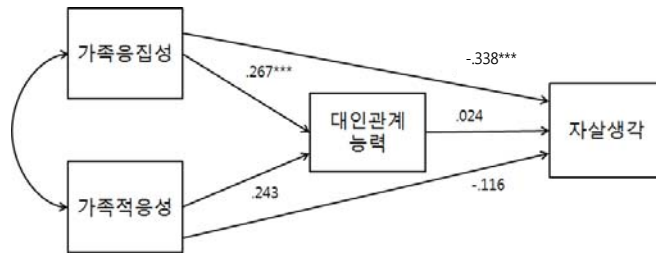


그림 3.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능력의 매개모형 (표준화 계수)

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의 하위 요인 중 긍정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표 4와 그림 4에 제시하였다. 표 4와 그림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가족응집성은 긍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B=.401, p<.001$), 긍정성은 자살생각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278, p<.001$). 즉, 가족응집성이 높을수록 긍정성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자살

생각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적응성은 긍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B=.101, ns$), 자살생각에 대한 가족응집성($B=-.165, ns$)과 가족적응성($B=-.079, ns$)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아 긍정성이 가족응집성과 자살생각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였다.

가족응집성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긍정

표 4.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과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 긍정성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계수

관계 변인	B	β	SE	C.R.
가족응집성 → 긍정성	.401***	.528	.051	7.810
가족적응성 → 긍정성	.101	.115	.060	1.698
긍정성 → 자살생각	-.278***	-.253	.060	-4.599
가족응집성 → 자살생각	-.165	-.198	.068	-2.420
가족적응성 → 자살생각	-.079	-.082	.075	-1.065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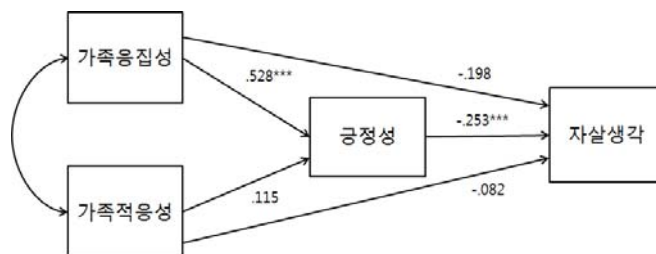


그림 4.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긍정성의 매개모형 (표준화 계수)

표 5.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의 자살생각에 대한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 긍정성의 매개효과

경로	부트스트랩추정치	SE	95% 신뢰구간 (Bias-corrected bootstrap)	
			하한	상한
가족응집성 → 긍정성 → 자살생각	-.165	.068	-.307	-.019
가족적응성 → 긍정성 → 자살생각	-.079	.075	-.210	.085

성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하여 Shrout와 Bloger(2002)가 제안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으로 유의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에 제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가족응집성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긍정성의 간접효과는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매개효과가 유의미하였다($B = -.165$, 95% 신뢰구간 = $-.307, -.019$).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이 초등학생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회복탄력성이 매개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을 하나의 개념으로 다루거나 가족적응성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간과해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두 변인을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자살생각에 대한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 각각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회복탄력성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요인들의 매개효과를 각기 따로 분석함으로써 회복탄력성을 구성하고 있는 어떠한 세부특징이 가족의 기능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구체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초등학생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및 가족적응성은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 중 긍정성에 의해 매개되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자기조절능력, 자살생각 간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자기조절능력은 가족응집성 및 가족적응성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응집성만이 자살생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 집단에서 부모-자녀간의 유대관계가 높을수록 자살사고가 낮아진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송인한, 권세은, 정은혜, 김리자, 2011)나 가족응집성이 학업스트레스와 자살사고간의 관계를 조절한다고 밝힌 이서원과 장용연(2011)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문제 해결을 위한 자신감이나 유연한 태도가 부족한 초등학생들은 도움을 요청하고 위로 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관계가 없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를 겪게 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회피하거나 벗어나고자 자살을 생각하게 된다(이경진, 조성호, 2004). 가족응집성이 낮은 경우 아동들은 가족과 충분히 밀착되어 있다고 느끼지 못하고 이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살생각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한국자살예방협회, 2008;

Friedrich, Reams & Jacobs, 1982; Morrison & Collier, 1969; Williams & Lyons, 1979; Zhang & Thomas, 1991). 한편, 회복탄력성의 세부 특징인 자기조절능력은 가족의 기능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를 매개하지 못하였다. 자기조절능력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그것을 조절하는 능력이다. 자기조절능력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발되는 부정적인 감정을 통제하고 충동적 반응을 억제하며 문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대처 방안을 찾아내는 능력이다(김주환, 2011). 회복탄력성이 높다는 것은 난감하거나 우발적인 상황에서 유연성을 발휘해 문제를 해결하고 충동적인 감정을 조절하는 내적 힘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이현경, 2012). 높은 회복탄력성은 아동이 부정적이거나 예측하지 못한 외부사건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서 적응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해준다(이현수, 2009). 이러한 자기조절능력은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이것이 직접적으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자기조절능력과 자살생각 간의 단순상관계수는 $-.225$ 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가족응집성 및 가족적응성과의 관계를 설정한 모형에서는 자기조절능력이 초등학생의 자살생각을 예측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생의 경우 자기조절능력보다는 가족 구성원들 간의 친밀한 정서적 관계가 자살생각을 더욱 잘 설명해주는 변인임을 시사해준다. 자기조절능력은 사회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아동기부터 청소년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이경남, 1996) 좀 더 높은 연령대에서는 자기조절능력이 자살생각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일 수 있으므로 추후 검증이 요구된다.

둘째,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대인관계능력은 가족응집성 및 가족적응성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조절능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족응집성만이 자살생각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능력은 상대방의 감정을 잘 파악하고 깊이 이해하며 그들과 공감함으로써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능력이다(김주환, 2011). 초등학생들의 대인관계는 청소년이나 성인과 달리 다소 좁은 또래관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고, 발달적인 특성상 아직 가족 간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한 시기이다(장휘숙, 2010). 즉, 초등학생의 경우 폭넓은 인간관계를 주도적으로 형성하기보다는 가족 구성원들 간의 관계에 상당 부분 의존하거나 몇몇 또래들과의 관계를 수동적으로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은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성숙도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일 수 있다. 자살생각을 예방할 수 있는 수준의 대인관계능력은 극심한 스트레스나 위기 상황에서 타인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추구하는 능력과 관련될 가능성이 높는데 초등학생의 경우 가족 이외의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 대인관계능력은 회복탄력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하위 능력이지만 초등학생의 자살생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족응집성은 초등학생의 대인관계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초등학생들은 가족 간의 관계에서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으며 점차 가족 이외의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초등학생들에게는 넓은 범위의 인간관계를 유

지, 관리하는 능력이 제한적이므로 친밀한 가족 관계 내에서의 정서적 교류가 자살생각을 예방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회복탄력성의 마지막 하위요인인 긍정성은 가족응집성과 자살생각간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긍정성 모형에서는 가족응집성이 자살생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긍정성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성은 자신의 장점과 강점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태도와 행복의 기본 조건인 삶에 대한 만족도로 측정된다(김주환, 2011). 회복탄력성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회복탄력성의 하위 개념 중 하나인 긍정성이 우울증 환자의 자살시도를 막아주는 중요한 보호요인이라는 보고가 있다(안소정 등, 2013). 낙관성이 높은 아동의 경우 부정적인 문제를 과잉일반화하지 않고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낙관적인 기대를 가지고 문제 중심의 극복을 시도하여 스트레스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이는 회복탄력성을 구성하는 속성들 중 긍정성이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적응을 돕는 중요한 변인임을 보여준다(장경문, 2003). 아동청소년의 일상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김연화(2010)의 연구에서도 자아탄력성의 하위변인들 중 활력성과 낙관성이 행복감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복탄력성은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통제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우울과 불안을 극복하는 자원으로 활용되며(김현주, 2005), 심리적 안녕감(박지아, 유성경, 2003)을 갖도록 한다. 즉,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지니고, 삶에 대한 통제감이 있

으며, 미래를 긍정적으로 지각하여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Brenda, 1998).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가족응집성이 높을수록 긍정성이 높아지고 이는 초등학생의 자살생각을 막아줄 수 있는 회복탄력성의 가장 결정적인 세부 특징으로 판단된다. 즉, 회복탄력성의 다른 세부 특징인 자기조절능력이나 대인관계능력의 경우에는 가족응집성과 자살생각간의 관계를 매개하지 못한 반면, 긍정성의 경우에는 가족응집성이 직접적으로 자살생각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성을 매개로 자살생각을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 간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 정서적 친밀감이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고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심어주어 자살생각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송미은(2013)의 연구에서는 가족이 건강하고 가족으로부터 받는 영향이 긍정적일수록 위기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겨내는 힘이 길러지는 반면 가족건강성이 낮으면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지고 어려운 상황에서 정서 통제가 잘 되지 않아 회복탄력성이 낮아진다고 하였다. 즉, 가족구성원 간의 정서적 친밀감을 나타내는 가족응집성이 높으면 가족으로부터 받는 긍정적 정서의 영향으로 긍정성을 포함하는 회복탄력성이 높아져 스트레스에 잘 대처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아동의 부적응적인 자살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다. 반대로 가족응집성이 낮은 경우 아동은 가족 내에서 충분한 정서적 친밀감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는 아동으로 하여금 스트레스 상황에 융통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의 발달을 방해하여 결국 일상적인 문제 상황에서 자살사고를 보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탄력

성이 개인의 긍정적 요인, 가족의 지지, 가족 이외의 지지적인 환경의 세 가지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Tilmann, Mossige, Stefansen & Hiemdal (2010)의 제안과 다양한 긍정적 가족 특성이 청소년기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Olson, Bond, Burns, Vella-Brodrick & Sawyer, 2003; Wyman, Sandler, Wolchik & Nelson, 2000)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이상의 선행연구들과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높은 가족응집성은 가족 내의 정서적 친밀감을 바탕으로 아동의 긍정성을 포함한 전반적인 회복탄력성을 높이고 이는 아동의 자살사고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가족적응성은 자살생각은 물론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3개의 매개모형에서 가족적응성은 자기조절능력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살생각을 유의하게 예측하지는 못하였다. 학교에서 공격성을 보이는 문제행동아에 대한 연구에서 문제행동아의 경우 가족 간의 체계가 확고하고 융통성이 없으며 아동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는 불변적인 가족구조를 지니고 있었던 반면, 일반아동은 문제행동아보다 가족체계의 상황적 변화 능력을 높게 지각하여 가족적응성이 높게 나타났다(정채영, 1999). 가족체계의 변화에 대응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가족적응성이 낮은 경우 아동은 일상생활에서의 상황적 변화에 융통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 반면, 가족체계가 상황적, 발달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와 스트레스에 유연하게 반응하는 환경에서 성장하는 아동들은 스스로 자신의 일을 계획하고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되고 이는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모형에서 자살생각 혹은 회복탄력성에 대한 가족적응성의 설명력이 거의 드러나지 않은 것은 상대적으로 가족응집력의 설명력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이 연구모형에 함께 투입됨으로써 가족응집성의 영향이 통제된 상태에서 가족적응성의 고유한 영향력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목적 중 하나는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 중 어떠한 변인이 회복탄력성 및 자살생각과 더 높은 관련성을 보이는지 살펴보는 것이었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을 함께 고려하지 않고 각각 개별적으로 분석하거나 이들 두 변인을 가족기능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 분석한 경우가 많아 이들 두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시기에는 가족 체계의 특성 중 가족응집성이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키거나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초등학생이 지각한 가족응집성은 자살생각을 낮추는 직접적인 효과를 지닌은 물론 회복탄력성의 하위 개념 중 긍정성을 매개로 간접적으로도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응집성은 초등학생의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일차적으로 가족응집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개입이 필요하겠다. 즉,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을 늘려 정서적 유대감을 높이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부모와 자녀가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동의 자살생각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지름길이 될 수 있다. 특히, 회복탄력

성의 하위변인인 긍정성은 아동이 지각한 가족응집성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아동의 자살생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이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일상생활 속의 여러 문제들에 잘 대처하여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의 회복탄력성 증진이 중요하겠다. 아동이 가족 내에서 받는 정서적 지지와 부모로부터 학습하는 긍정적인 대처 능력은 아동이 극단적으로 자살생각을 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으며 아동의 내적 힘을 키워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 특히 초등학생들에게는 부모의 영향력이 큰 만큼 부모로부터 받는 긍정적인 지지와 가치 있는 평가는 아동의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고 자살 충동을 완충할 것으로 생각된다.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이 낮은 경우에도 아동의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아동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동이 스트레스나 위기 상황에서 좌절하고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충분한 사회적 지지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노력들은 아동의 회복탄력성을 증진시켜 궁극적으로는 극단적인 자살생각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교 또는 상담 현장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 초등학생의 자살생각 평균은 6.15였다. 이러한 수치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안현진(2009)과 배상윤(2012)의 연구에서 확인된 자살생각 평균(각각 6.42와 6.5)과 거의 유사하다. 이는 그동안 청소년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실시되었던 자살예방 교육을 초등학생으로 더욱 확장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자살생각은 물론 실제 자살시도의 위험이 점차 저연령의 아동들에게도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자살의 문제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회복탄력성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후천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만큼 학교 내 특별활동이나 방과 후 학습시간 등을 활용하여 아동의 긍정성을 강화하고 아동의 심리내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이들이 스트레스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과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인 자기조절능력과 대인관계능력은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달할 수 있으며 자기조절능력 향상을 위한 인지행동치료나 대인관계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회기술훈련 또는 대인관계치료 등을 통해 청소년기 이후에도 꾸준히 개입할 수 있으나 긍정성의 발달은 아동이 어릴 때부터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현장에도 전문 상담 인력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 아동들에게 필요한 심리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이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 내에서도 긍정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과 대구의 특정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으로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주하고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성별, 학년, 지역 등으로 세

분화하여 각 집단 간 차이를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회복탄력성의 세 가지 하위요인에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자살생각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3.91, p<.001$). 따라서 후속 연구들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다 면밀하게 검증해볼 필요가 있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자기보고에만 의존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객관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가족의 기능에 관한 부모의 보고나 면접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겠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Olson 등(1983)의 이론에 따라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을 별개의 구분되는 개념으로 가정하고 응집성과 적응성 중 어떠한 변인이 초등학생의 자살생각 및 회복탄력성을 설명하는데 더 중요한 변인인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 간에는 .828의 높은 상관이 나타나 이 두 변인이 과연 원래의 이론대로 서로 구별되는 개념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 간의 관련성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의 하위변인 3개를 각각 따로 분석하였다. 회복탄력성의 총점을 사용하거나 하위변인 3개를 측정변수로 하고 회복탄력성을 잠재변수로 분석을 하는 경우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본 연구의 대상이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자기조절능력이나 대인관계능력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과소평가

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좀 더 높은 연령대를 대상으로 회복탄력성 및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들의 매개효과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 강동수 (2003). 집단 따돌림의 피해 아동의 자살생각.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현선 (2014). 부모와의 관계가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회복탄력성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계숙 (2013).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초등학생 자녀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애 (1997).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가족체계특성과 청소년의 성격 특성.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희 (1997). 초등학생이 지각한 가족체계유형과 자아개념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선 (2005).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이점발견(benefit-finding)과의 관계 연구: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보영 (2010). 가족기능과 가족소외감의 관계에 관한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연화 (2010). 아동청소년의 일상스트레스 및 자아탄력성과 행복감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7(12), 287-307.
- 김원경 (2014). 한국 초, 중, 고등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 한국청소년연구, 25(3), 199-231.

- 김진희 (1989). 부모-청소년 자녀간 의사소통과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과의 관계.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주연 (1996). 가족기능에 따른 아동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주환 (2011). 회복탄력성, 시련을 행운으로 바꾸는 유쾌한 비밀. 위즈덤 하우스.
- 김현주 (2005). 놀이치료자의 자아탄력성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역전이 관리능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대근, 이진주, 이종각, 김정민, 문수백 (2013). 청소년의 자살생각 관련변인들 간의 인과적 구조분석: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자아존중감, 집단따돌림 그리고 우울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34(3), 93-112.
- 민하영 (1991). 청소년 비행정도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경은 (2014). 초등학생 회복탄력성과 용서와의 관계: 초등학생 5~6학년 대상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선 (2012). 학령기 아동의 자살생각과 관련변인들 간의 관계 구조분석.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선애 (2006). 초등학생이 지각한 가족응집성-가족적응성 및 부모-자녀간 기능적 의사소통 수준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수진 (2009). 아동이 지각하는 가족기능과 학업 성취동기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수진 (2014, 5, 30). 어린이·청소년 '주관적 행복지수' 6년째 OECD 꼴찌.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9987.html 에서 2015, 10. 자료 얻음.
- 박지아, 유성경 (2003). 적응유연성과 영적 안정 및 부모애착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4), 765-787.
- 박현철, 김성봉, 홍달아기 (2011). 아동이 지각한 가족기능과 사회적 지지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6(3), 167-193.
- 배상윤 (2012). 일부 중학생의 절망감,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및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미은 (2013). 초등학생의 가족건강성과 자아존중감이 회복탄력성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대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은경 (2003). 가족의 기능과 아동의 성격특성 및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인한, 권세원, 정은혜, 김리자 (2011). 중학생의 부모-자녀 유대와 자살사고간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가지는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8(2), 199-217.
- 신귀순 (2001). 가족의 기능에 따른 아동의 자기역량 지각과 대인관계 성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김중술 (1990). 고등학생의 자살성향에 관한 연구: 우울-절망-자살간의 구조적인 관계에 대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9(1), 1-19.
-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 (2009a). 회복탄력성 검사 지수의 개발 및 타당도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0(4), 105-131.
- 신우열, 최민아, 김주환 (2009b). 회복탄력성의 세 가지 요인이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중독 성향에 미치는 영향.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6(3), 43-81.

- 신정희 (2007).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혜정, 정익중, 이상아, 이향연, 박재연 (2014). 청소년의 우울,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 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교사회복지*, 27, 25-50.
- 안소정, 박은희, 홍현주, 송정은, 육기환, 김소은 (2013). 청소년 우울증 환자에서 자살 시도의 보호요인으로서 회복탄력성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2(2), 351-366.
- 안현진 (2009). 중학생 스트레스와 자살사고의 관계: 성향적 낙관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여지영, 박태영 (2013).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관한 연구: 회복탄력성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0(8), 121-145.
- 유성경, 이소래 (2001). 청소년 비행수준에 따른 위험요소 및 보호요소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2), 187-205.
- 유성경, 홍세희, 최보운 (2004). 가정의 위험요소와 적응의 관계에서 자아 탄력성, 애착, 실존적 영성의 매개 효과 검증. *교육심리연구*, 18(1), 393-408.
- 윤기영 (2010). 고등학생의 가족관계와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상영 (2013). 아동기 학대 경험 및 부부폭력 노출 경험이 성인기 미치는 영향 회복 탄력성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남 (1996). 인지적-행동적 자기통제 훈련이 아동의 자기통제능력과 과제수행능력의 개선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0(1), 25-145.
- 이경진, 조성호 (2004). 청소년 자살 고위험 집단의 심리적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4), 667-685.
- 이서원, 장용언 (2011). 학업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가족응집성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8(11), 111-136.
- 이은정 (2000). 가족의 기능적 특성과 교우관계가 아동의 역량지각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윤, 허재홍 (2003). 아동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위험요인. *청소년상담연구*, 11(2), 85-95.
- 이지연 (2005). 스트레스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청소년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춘재, 성현란, 송길연, 윤혜경, 김혜리, 박혜원, 장유경, 정운경 공역 (2002). 발달정신병리학: 영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박학사.
- 이현경 (2012). 지각된 부모의 공감능력이 후기 청소년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회복탄력성을 매개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수 (2009). 역경속의 성장. 학지사.
- 장경문 (2003).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심리적 성장환경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0(4), 143-161.
- 장휘숙 (2010). *청년심리학 (제4판)*. 박영사.
- 장소현 (2010). 청소년의 정서조절능력과 부모양육행동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채영 (1999). 문제행동아의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과 동작성 가족화 검사반응간의 관계연

- 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귀연, 최보가(1995a). 가족응집성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3(1), 83-96.
- 전귀연, 최보가(1995b). 가족적응성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3(2), 73-87.
- 조순중 (2010).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소영, 이양희 (2007). 아동용 탄력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초등학교 4-6학년용. *아동학회지*, 28(2), 91-113.
- 채경숙 (2012).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 및 문제해결능력의 관계. 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승욱 (2011, 11, 1). 연령 낮아지는 자살상담. *초등생*, 3년간 2.6배 급증.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5513068&code=11131200> 에서 2015, 10. 자료 얻음.
- 최희량 (1998).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대인문제 성향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자살예방협회 (2008). 자살의 이해와 예방. 학지사.
- 한현아, 도현심 (2008). 가정의 위협요인, 자아탄력성 및 또래관계의 질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1), 87-101.
- 허미정, 장석진 (2012). 가족기능과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3(3), 1211-1231.
- Barnes, H., & Olsen, D. H. (1985).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circumplex Model. *Child Development*, 56, 438- 447.
- Beck, A., Kovacs, M., & Weissman, A. (1979). Assessment of suicidal intention; The scale for suicide Ide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 343-352.
- Block, J. H., & Block, J. (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s(Ed.), *Development of cognition, affect and social relations. The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pp.39-101).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Brenda, M. (1998). Personal resilience, cognitive appraisals, and coping: An intergrative model of adjustment to abor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3), 735-752.
- Brooks, R. & Goldstein, S. (2003). *Nurturing resilience in our children*. Chicago: Contemporary Books.
- Choquet, M., Kovess, V., & Poutignat, N. (1993). Suicidal thoughts among adolescents: an intercultural approach. *Adolescence*, 28(111), 649-659.
- DeWilde, E. J., Kienhorst, C. W., Diekstra, R. F., & Wolter, W. H. (1994). Social support, life events, and behavioural characteristics of psychologically distressed adolescents at high risk for attempting suicide. *Adolescence*, 29(113), 49-60.
- Diekstra, R., Keinhorst, C., & DeWilde, F. (1995). Suicide and suicidal behavior among adolescents. In M. Rutter & D. Smith, *Psychosocial disorders in young people: time trends and their causes*. Chichester(GB): Wiley.
- Friedrich, W., Reams, R., & Jacobs, J. (1982).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in early

-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1, 403-407.
- Garrison, C. Z., Addy, C. L., Jackson, K. L., McKeown, R. E., & Waller, J. L. (1991). A longitudinal study of suicidal ideation in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0(4), 597-603.
- Garmazy, N., & Rutter, M. (1985). Acute stress reactions. In M. Rutter & L. Hersov(Eds.).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Modern approaches*. Oxford: Blackwell.
- Galvin, K. M., & Brommel, B. J. (1986). *Family communication: Cohesion and change*, Illinois: Scott Foreman and Co.
- Greene, D. B. (1994). Childhood suicide and myths surrounding it. *Social Work*, 39, 230-232.
- Goldenberg, I., & Goldenberg, H. (1991). *Family therapy: An overview(3rd ed.)*. CA: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 Hoberman, H., & Garfinkel, B. (1988). Completed suicide in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American Academy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27, 689-695.
- Hurry, J. (2000). Deliberate self-harm in children and adolescents. *International Review Psychiatry*, 12, 31-36
- Kandel, D., Raveis, V., & Davies, M. (1991).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ce: Depression, substance use, and other risk facto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0, 289-309.
- King, C. A., Segal, H., Kaminski, K., Naylor, M. W., Ghaziuddin, N., & Radpour, L. (1995). A prospective study of adolescent suicidal behavior.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5, 327-338.
- Luthar, S. S., Cicchetti, D., & Becker, B. (2000). The construct of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s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71(3), 543-562.
- Mishara, B. L. (1999). Conceptions of death and suicide in children ages 6-12 and their implications for suicide prevention.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9, 105-118.
- Morrison, G. C., & Collier, J. G. (1969). Family treatment approaches to suicidal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Child Psychiatry*, 8, 140-148.
- Nrughan, L., Holen, A., & Sind, A. M. (2010). Associations between attempted suicide, violent life events, depressive symptoms, and resilience in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98, 131-136
- Olson, D. H., McCubbin, H. I., Barnes, H., Larsen, A., Muxen, M., & Wilson, M. (1986). *Family Inventories*. St. Paul, MN: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Olson, D. H., Russell, C. S., & Sprenkle, D. H. (198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 VI. Theoretical update. *Family Process*, 22, 69-83.
- Olson, D. H., Porter, J., & Lavee, Y. (1985). *FACES III*. St. Paul, MN: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Olson, C. A., Bond, L., Burns, J. M., Vella-Brodrick, D. A., & Sawyer, S. M. (2003). Adolescent resilience: a concept analysis. *Journal of Adolescence*, 26, 1-11.
- Pfeffer, C. R., Klerman, G. L., & Hurt, S. W. (1993). Suicidal children grow up: Rates and

- psychosocial risk factors for suicide attempts during follow up. *Journal of American Academy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2, 106-113.
- Reed, J. S., & Dubow, E. F. (1997). Cognitive and behavioral predictors of communication in clinic-referred and nonclinical mother-adolescent dya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 91-102.
- Reivich, K. & Shatte, A. (2003). *The resilience factor*. New York, NY: Broadway Books.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Taylor, E. A., & Stansfeld, S. A. (1984). Children who poison themselves. I. A clinical comparison with psychiatric controls.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5, 127-132.
- Thompson, A. E., Eggert, L. L., & Hurting, R. J. (2000). Mediating effects of an indicated prevention program for reducing youth depression and suicide risk behavior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0(3), 252-271.
- Tilman, von S., Mossige, S., Stefansen, K., & Hjemdal, O. (2010). A Validation Study of the Resilience Scale for Adolescent.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32(2), 215-225.
- Tugade, M, M., & Fredrickson, B. L. (2004). Resilient individuals use positive emotions to bounce back from negative emotional experien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6(2), 320-333.
- Wilson, K. G., Stelzer, J., Bergman, J. N., Kral, M. J., Inaytullah, M, & Elliot, C. A. (1995). Problem solving, stress, and coping in adolescent suicide attempt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5, 241-252.
- Williams, C., & Lyons, C. M. (1979). Family interaction and adolescent suicidal behavior: A preliminary investigation. *Australian Journal of Psychiatry*, 10, 243-252.
- Wyman, P. A., Sandler, I., Wolchik, S., & Nelson, K. (2000). Resilience as cumulative competence promotion and stress protection: Theory and intervention. In D. Cicchetti (Ed.), *The promotion of wellnes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pp. 133 - 184). Washington, DC: CWLA Press.
- Yates, T., Egeland, B., & Sroufe, L. A.(2003). Rethinking resilience, A developmental process perspective. In S. Luther(Ed), *Resilience and vulnerability: Adaptation in the context of adversiti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Zhang, J., & Thomas, D. L. (1991). Familial and religious influences on suicidal ideation. *Family Perspective*, 25, 301-321.

원 고 접 수 일 : 2015. 11. 02

수정 원고접수일 : 2016. 04. 04

게 재 결 정 일 : 2016. 06. 08

The effects of family cohesion and family adaptability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suicidal ideation: Mediation effect of resilience

Hui Jeong Hwang

Joo Young Lee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Education, Dongduk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family cohesion and family adaptability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suicidal ideation and to identify the mediation effect of resilience. A total of 424 5th and 6th grade students from 3 schools in Seoul and Daegu participated in the study. Correlation analysis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s among family cohesion, family adaptability, 3 subscales of resilience, and suicidal ideation. In path analysis, only positiveness, one of the 3 subscales of resilience, fully mediated the effect of family cohesion on suicidal ideation. Self-regulation ability and interpersonal ability did not show significant mediating effects while family-cohesion directly affected suicidal ideation. In conclusion, family cohesion is a meaningful predictor of children's suicidal ideation and resilience and, positiveness, serves as an important mediating factor between vulnerable family function and suicidal ideation.

Key words : suicidal ideation, family cohesion, family adaptability, resilience, elementary school students